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U, 현대중-대우조선 결합심사 재개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팬데믹 확산 여파로 일시 유예했던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사를 3일(현지시간) 재개했다고 보도됨. EU 집행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심사 기한을 오는 9월 3일로 제시했다고 보도됨. 앞서 EU 집행위는 COVID-19 확산 여파로 심사 관련 자료 수집 등에 애로가 있자 지난 3월 31일부터 심사를 유예한 바 있음. (연합뉴스)

원유 재고 destocking 영향 하위급이 먼저 받아

석유 재고 물량이 풀려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을 선박은 하위급 탱커들이 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선박에 저장된 재고 물량을 비울 경우 제일 먼저 비우는 물량은 하위급인 아프리카막스 탱커 물량이고 다음으로 수에즈막스 탱커, VLCC 순이라고 보도됨. 하위급 선박의 재고 물량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대한조선, 중형탱커 절대 강자로 우뚝

대한조선이 조선시황 침체와 전 세계 팬데믹 확산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수주 낭보를 올리며 중형 탱커 분야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보도됨. 5월 22일 Neda Maritime으로부터 아프리카막스급 탱커 1+1척을 수주한데 이어 5월 29일에도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1척을 추가로 수주하면서 2년치의 안정적인 건조물량을 확보하게 됐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New Times wins suezmax deals worth up to \$364m from European duo

중국의 New Times Shipbuilding이 두개의 유럽 선사로부터 수에즈막스급 탱커를 대거 수주했다고 보도됨. 옵션분까지 포함하면 총 계약금액은 3.64억달러 수준이라고 보도됨. J Ludwig Mowinckels Rederi로부터 2+2척을 수주했고, Pantheon Tankers Management로부터 옵션분 포함 3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Capesize rates rise as iron ore output grows in Australia

COVID-19와 브라질산 벌크화물 물동량 감소로 부침을 겪고 있던 Capesize 벌크선의 운임이 최근 호주의 철광석 광산 ramp-up 이슈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됨. Baltic Exchange Capesize Index가 수요일 356p에 도달했으며, 평균 용선료는 하루 5,267달러로 전일 대비 +25% 올랐다고 보도됨. (TradeWinds)

현대중 노조, 그룹사 전체 공동교섭 보장 요구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전체 그룹사 공동교섭 보장을 사측에 요구했다고 보도됨.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2만 304원 인상, 성과급 +250% 이상 보장 등을 담은 2020년 임금 및 단체 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했다고 밝힘. 이 가운데 그룹사 공동교섭 보장은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사를 상대로 교섭하겠다는 뜻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